

## 학습 수단으로서의 글쓰기

이 수 형\*

글쓰기교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대개 리포트를 잘 쓰는 것에 관심이 많다. 자발적으로 방문했다면 그러한 태도가 당연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의 담당 교수님이 리포트에 적지 않게 비중을 두는 것일 테니 리포트를 잘 써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이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다. 리포트 상담 이외에 <리포트 작성법 코스 워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성도 상당한 것 이어서, 이제 리포트를 ‘왜’ 잘 써야 하느냐는 질문은 시의에 적절하지 않고, 당장 리포트를 ‘어떻게’ 잘 써야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더 들여다보면, 여전히 왜 잘 써야 하는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잘 써야 하는 것이 ‘리포트’라는 범위를 넘어 ‘글’이라는 것 일반으로 확장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리포트 상담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리포트의 독자에 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리포트의 독자를 담당 교수님으로 한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한정할 때 리포트는 시험 답안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 되기 쉽다. 이 말의 함의는 시험 답안이 나쁜 글이라거나 혹은 쓰기 쉬운 글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외워서 쓰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리포트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글이 아닐 수 있다는 뜻에 가깝다.

학생들이 리포트 잘 쓰기에 관심이 많은 만큼, 요즘 과제로 부여되는 리포트의 성격 역시 다양해져서 책에 대한 감상이나 서평 같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쓸 수 있는 것 이외에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학생은 서너 페이지짜리 리포트에 각주를 30~40개씩 붙이는 열정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룹 리포트로 A4 100매 이상을 제출하기도 한다.

그런 리포트에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긴 하나 풍부한 지식과 정보의 바다 속에서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조교

글 전체의 맥락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면 십중팔구는 리포트에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교수님은 그 맥락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물론 담당 교수님은 알 수 있을 테지만, 그런 '리포트'가 좋은 '글'일 경우는 드물다.

리포트의 독자를 담당 교수님으로 한정할 경우, 리포트를 쓰는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학습량을 드러내고 싶을 것이고, 그것은 예컨대 리포트를 쓰기 위한 전제 지식으로서는 필요하지만 실제 리포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한두 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지나치게 늘려서 집어넣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은 문명의 교류에 대한 과목의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별 상관없는 실크로드에 대한 정보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고고학과 관련된 과목의 리포트에서 단지 쌀이라는 항목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두 페이지 이상 서술하기도 한다.

이것은 비단 리포트에 여분의 지식과 정보가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많은 것 이 문제라면 분량을 줄이면 그만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나열하는 리포트 쓰기에 익숙해지면 전체 맥락에 맞게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하는 글쓰기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결국

어떤 것을 그대로 두고 어떤 것을 삭제하느냐의 판단력 역시 점점 흐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리포트의 경우는 장황한 논증 과정에 비해 결론이 소략하거나 상식적인 경우가 많다. 논거로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늘어놓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명의 교류에 대한 과목의 리포트에서는 A지역의 문물이 B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A지역과 B지역은 서로 교류했다는 것이 결론이며, 고고학에 관한 과목의 리포트에서는 과거의 어떤 유물 A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A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A지역과 B지역의 교류가 왜,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유물 A가 왜, 어떻게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 안에 남아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정답이 아닌 가설이거나 심지어는 틀린 답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좋은 글이란 소위 '비판적 시각' 혹은 '자신의 입장'이라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 4월 9일에 글쓰기교실이 개최한 <나의 학문과 글쓰기>\*\*에서 장희익 선생님(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은 학문의 성격에 따라 많은 지식을 정리

\*\* 장희익 선생님의 <나의 학문과 글쓰기> 강연은 글쓰기교실 홈페이지(writing.snu.ac.kr) 자료실에서 동영상과 텍스트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는 것이 충분한 학문적 업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지식의 수집·정리보다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요지의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이 말은 ‘비판적 시각’ 혹은 ‘자신의 입장’이란 후자의 경우에는 좀더 긴요하겠지만, 그것이 학술적 글쓰기를 포함한 학문 활동 전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이란 항상 학문적 업적을 쌓기 위해서 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글쓰기는 학문하기의 초기 단계에 꼭 필요한 학습 수단이기 때문이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글쓰기가 아니라 글(책)읽기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글읽기는 글쓰기에 의해 보완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다시 장희익 선생님의 강연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책을 읽으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해가 되는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물리학 책이 그러했는데, 이 때문에 책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막히면 읽는 것이 중단되고 학습이 중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운 전략은 나 자신이 저자라고 가정하고 책의 내용을 나 나름대로 써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시작할 때는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오지만 어쨌든 나 나름대로, 내게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책의 내용을 고쳐 쓰는 것입니다. (...) 어쨌든 학습에서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 내용을 글로 표현해서 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이해를 못했거나 그 학문이 체계를 못 잡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글쓰기를 해 보는 것은 학습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이 이해한 만큼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단지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에 생소한 초보 독자로서의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스스로 저자가 되어 책을 고쳐 쓰는 것이다. 오히려 이 작업은 앞서 말한 리포트, 즉 담당 교수님을 독자로 설정한 리포트를 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독자로서의 담당 교수님은 리포트의 저자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맥락을 놓친 부분까지 채워 넣어 독서를 하겠지만, 독자로서의 자신은 저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맥락을 놓친 부분을 절대 알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저자로서의 자신은 자신이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읽은 내용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이나 ‘자신의 입장’과 같은 계기가 개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고쳐 쓰는 과정은 ‘저자/독자’로서의 자신이 기준에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고쳐 쓰는 텍스트가 철학 책이라면 자신이 그 동안 인식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각해 왔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고쳐 쓰는 텍스트가 물리학 책이라면 자신이 그동안 물체의 움직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왔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

고 ‘책읽기/고쳐 쓰기’가 자신이 기준에 갖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좀더 보편적으로 확인시켜준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때, 가치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희의 선생님의 강연 내용 중에 들어 있던 한 일화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양자역학이 성립되기 전의 혼란기에 대학원생 드 브로이가 전자도 파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주장한 박사논문을 제출했는데, 슈뢰딩거가 이 논문을 설명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슈뢰딩거가 논문을 읽어 보니 드 브로이의 이론이 너무 영성해서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고,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쳐 쓰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유명한 슈뢰딩거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모든 ‘고쳐 쓰기’가 불멸의 업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자/독자’ 자신만이

라도 이해시킨다면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둔 셈이 아닐까?

리포트를 ‘왜’ 잘 써야 하느냐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리포트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글의 논리적 측면과 수사적 측면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으며, 그 대답은 또 글의 독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과 결부된다. 다시 말해, 글이란 것도 일종의 ‘대화’이며, 따라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의 존재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독자는 아마도 자기 자신(혹은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학생들)일 것이다. 그리고 ‘왜’나 ‘어떻게’를 떠나서, 잘 쓴 리포트란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우선 ‘저자/독자’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별로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